

# 방과후 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 :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유형의 개수, 혼합이용 패턴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After-school Service Use on Self-care of Children  
: Focusing on the Types of Service, the Number of Types, and the Patterns of Service Use

정 선 영(Jung, Sun 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after-school services on whether they reduced the possibility of self-care of children.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after-school services, it focused on the 1) types, 2) diversity, and 3) use patterns of the after-school services. For the analysis, it used data of the cohort of elementary-school childre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ivate mentoring and after-school services provided by welfare centers reduced the possibility of self-care. Second, when the total amount of educational time was controlled, the diversity of participating after-school services did not explain the possibility of self-care. Third, when the total amount of educational time was controlled, the use patterns of after-school services did not explain the possibility of self-care. Based on these findings, it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

▲주제어(Key words): 방과후 서비스(after-school service), 자기보호(self-care), 서비스 유형(service types), 유형의 개수(the number of types), 혼합이용 패턴(patterns of service use)

## I. 서론

아동의 자기보호(self-care)는 아동이 성인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B. J. Lee & M. R. Cho, 2011), 평일 방과후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있거나(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B Foundation, 2009) 학교와 방과후 활동

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지내는 상황(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등으로 정의된다. 자기보호의 정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초등학생의 약 30%가 자기보호를 경험하고 있으며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아동이,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istry

---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5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Sun Young J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22012, Korea, Tel: +82-32-835-8314, E-mail: sunyung@inu.ac.k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B Foundation, 2009).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부모나 다른 성인 양육자의 보호제공 유효성(availability)으로 핵가족, 한부모가구, 취업모가구 등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L. Casper & K. Smith, 2004; L. M. Lopoo, 2005; J. Sohn, J. Lee, & S. Kim, 2012). 두 번째 요인은 아동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매를 결정짓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저소득가구에서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B Foundation, 2009) 서구에서는 저소득가구가 주로 위치한 지역사회의 높은 범죄율로 인해 저소득가구에 비해 비저소득가구의 자기보호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V. S. Cain & S. L. Hofferth, 1989; S. Vandivere, K. Tout, M. Zaslow, J. Calkins & J. Capizzano, 2003). 세 번째 요인은 아동과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부모가 백인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아동의 자기보호에 대해 관대하며(K. A. Mack, A. Dellinger, & B. A. West, 2012) 남자 아동이거나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 때에도 자기보호에 대한 부모의 염려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 Kim & J. Lim, 2012).

아동의 자기보호는 자립심과 책임감을 증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아동의 자기보호는 상해, 범죄피해, 결식 등을 경험할 확률을 높인다(J. Sohn et al., 2012). 둘째, 아동의 자기보호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할 확률을 높인다. 자기보호 아동은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고(B. J. Lee & M. R. Cho, 2011; S. Shulman, P. Kedem, K. J. Kaplan, I. Sever, & M. Braja, 1998) 흡연, 음주, 마약 등을 더 많이 경험하거나(J. A. Mott, P. A. Crowe, J. Richardson, & B. Flay, 1999) 폭력 등의 문제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 Shumow, T. J. Smith, & M. Smith., 2009; J. Sohn et al., 2012). 셋째, 아동의 자기보호는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을 높인다.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아동은 학교 결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A. Aizer, 2004) 학업성취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 J. Lee & M. R. Cho, 2011; L. Shumow et al., 2009).

자기보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

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적 개입 중 한 가지는 방과후 서비스이다. 방과후 서비스는 성인의 지도·감독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활동의 부족이나 과도한 TV시청 등과 같이 아동의 자기보호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J. Sohn et al., 2012)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방과후 서비스는 크게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사적 서비스와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방과후 교실 등의 공적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방과후 서비스의 효과는 교육의 차원에서는 분석되고 있으나(S. Byun, Y. Hwang, & K. Kim, 2011; H. Lee & H. J. Shin, 2008; J. S. Lee, 2013) 보호의 차원에서 분석된 바는 없다. 공적 방과후 서비스는 아동보호의 목적을 일부 반영하여 설계되었고, 사적 방과후 서비스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에 있으나 실제로는 아동보호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서비스의 보호기능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적 방과후 서비스 이용은 사적 방과후 서비스 구매가 여의치 않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도 현재까지는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이 아동의 자기보호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있어 1)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2)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 3) 방과후 서비스의 혼합이용 패턴을 살펴보았다.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자기보호 감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방과후 서비스를 알아보았는데, 이를 통해 자기보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방과후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보호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한 가지의 방과후 서비스보다는 여러 가지의 방과후 서비스를 혼합하여 이용할 때 보호의 공백이 감소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가 아동의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방과후 서비스의 혼합이용 패턴이 자기보호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자기보호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각종 방과후 아동 돌봄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모든 분석에는 서비스 총 이용시간(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총 학습시간)을 고려하였다. 서비스 총 이용시간과 자기보호는 부적의 관계에 있으리라 예측되지만,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유형의 개수, 혼합이용 패턴과 총 이용시간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에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총 이용시간이 동일하더라도 보호시간이 짧고 이동이나 대기 등으로 서비스의 공백이 나타나는 ‘학원’의 이용과 한 기관에서의 보호시간이 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은 아동의 자기보호에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방과후 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자기보호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별 방과후 서비스 유형 중 어떠한 유형이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는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어떠한 방과후 서비스 혼합이용 패턴이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기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의 자기보호(self-care)는 방임(neglect)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방임이 성인 보호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관심과 양육을 소홀히 하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인 반면에, 자기보호는 성인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 J. Lee & M. R. Cho, 2011). 아동의 자기보호는 서구에서는 ‘열쇠 아동(latchkey children)’으로, 국내에서는 ‘나홀로 아동’이라는 개념으로 조사·연구되고 있다. 아동의 자기보호에 대한 정의는 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가령,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2010)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와 SNU R&DB Foundation의 연구(2009)에서는 평일 방과후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있는 아동을 나홀로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1)는 학교와 방과후 활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지내는 아동을 나홀로 아동으로 보고 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1)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지내는 초등학교생은 10명 중 3명꼴인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은 가족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 ‘상’ 집단 아동의 27.1%가 자기보호를 경험한 반면에 경제수준 ‘하’ 집단 아동의 39.7%가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

청소년 실태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B Foundation, 2009)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약 8%,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약 23%가 평일 방과후에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자매하고만 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도 가족의 경제수준은 아동의 자기보호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층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은 약 40%로 차상위 이상 아동이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V. S. Cain & S. L. Hofferth, 1989; S. Vandivere et al., 2003) 가구소득과 자기보호의 관련성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자기보호는 아동에게 자립심과 책임감을 증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첫째, 자기보호 아동은 상해, 범죄피해, 결식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가령, 어린이재단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J. Sohn et al., 2012)는 자기보호 아동의 5.3%가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은 경험을 한 반면에 성인보호 아동의 2.1%만이 이러한 경험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 보호자가 없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없거나 배가 고플 때’를 응답한 경우가 15.8%에 달했는데, 이는 아동의 자기보호가 아동건강 및 발달의 기본적인 조건인 영양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자기보호 아동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아동의 자기보호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아동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S. Shulman et al., 1998). 우리나라 아동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기보호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재화 문제는 증가하며 이러한 영향력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J. Lee & M. R. Cho, 2011). J. Sohn et al.(2012)은 자기보호 시간대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저녁 식사 이후 시간에 홀로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 수준과 높은 우울 및 불안 수준을 보였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보호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공격·비행을 비롯한 외현화 문제행동과 약물남용 등의 위험행동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자기보호는

흡연, 음주, 마약 등을 경험하는 기회(J. A. Mott et al., 1999) 뿐만 아니라 폭력 등의 문제행동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 Shumow et al., 2009). J. Sohn et al.(2012)은 성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저녁식사 시간 이후에 친구와 함께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비행 행동 수준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기보호 아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L. Steinberg(1986)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자기보호 아동은 학업에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아동은 학교 결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A. Aizer, 2004) 학업성취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 Shumow et al., 2009). 이러한 결과는 국내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자기보호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중학생 시기에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 J. Lee & M. R. Cho, 2011). 아동의 자기보호 경험여부를 떠나 자기보호 경험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H. Lord and J. L. Mahoney(2007)는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의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3시간 미만 경험하는 아동에 비해 공격성은 높고 학업성취 수준은 낮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저소득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J. Soh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의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아동에게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보호의 결정적인 수준은 일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이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부모나 다른 성인 양육자의 보호제공 유효성(availability)이다.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현재의 아동들에게 부모의 부재는 곧 아동의 자기보호를 의미하게 되었다. 주변에 친인척이 거주할 경우 아동은 성인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자기보호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P. D. Brandon, 1999)는 핵가족화가 아동의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예: 한부모, 취업모)의 자녀들은 양부모나 비취업모가구의 자녀들에 비해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 Casper & K. Smith, 2004; L. M. Lopoo, 2005). 어린이재단 서

비스 대상 아동을 분석한 J. Sohn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한부모가구의 아동과 취업모의 아동은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혹은 주양육자의 취업여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도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혹은 주양육자의 근로시간이 긴 아동에게서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J. O. Johnson, 2005).

두 번째 요인은 아동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매를 결정짓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모가 생계를 위해 낮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며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경제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보호 상황에 더 쉽게 놓이게 된다(M. Seligson, A. Genser, E. Ganet, & W. Gray. 1983).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조사(예: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B Foundation, 2009)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구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자기보호의 관계는 비선형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J. Sohn et al.(2012)은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가구에 자기보호 아동이 더 많고 보고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수급가구는 성인에게 근로능력이 없거나 공적이전소득이 있기 때문에 성인 보호자가 근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에서 진행된 조사(V. S. Cain & S. L. Hofferth, 1989; S. Vandivere et al., 2003)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동의 자기보호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L. Casper & K. Smith, 2004).

세 번째 요인은 아동과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부모들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인감독보다는 아동의 자기보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L. Casper & K. Smith, 2004; L. M. Lopoo, 2005; S. Vandivere et al., 2003). 그러나 아동의 자기보호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연령은 부모의 민족성, 가구소득,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부모들은 미국의 백인 혹은 흑인 부모에 비해 아동방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J. B. Choi, 2008)를 통해 한국부모는 아동의 자기보호에도 관대한 경향이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K. A. Mack et al.(2012)은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연령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백인 부모들은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연령을 12.8세라고 하였으나, 흑인 부모는 13.7세, 히스패닉 부모는 13.5세로 응답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은 아동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연령으로 13.7세라고 응답한 반면에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의 경우에는 12.4세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형제자매의 수와 아동의 성별도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형제자매의 수가 많거나 아동이 남아일 때 부모는 아동의 자기보호에 대해 덜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 Kim & J. Lim, 2012).

### 3. 방과후 서비스의 종류, 내용, 효과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에 아동이 성인의 감독 및 지도 하에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방과후 서비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취업모와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과후 서비스는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 L. Mahoney, H. Lord, and E. Carryl(2005)은 방과후 아동의 돌봄 유형을 크게 1) 방과후 프로그램, 2) 부모돌봄, 3) 부모돌봄과 자기보호 혼합, 4) 기타 성인돌봄과 자기보호 혼합으로 나누어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보았는데 다른 돌봄유형에 비해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J. K. Posner and D. L. Vandell(1994)은 저소득가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유형이 아동의 학업성취수준과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돌봄 유형을 크게 1) 공적(formal) 방과후 프로그램, 2) 어머니 돌봄, 3) 비공식적인(informal) 기타성인 돌봄, 4) 아동의 자기보호로 나누었을 때, 공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다른 돌봄 유형에 속한 아동에 비해 공부시간은 긴 반면에 TV시청시간과 자기보호 시간은 짧으며, 이는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은 열악한 지역사회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 H. Lord and J. L. Mahoney(2007)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부정적인 범죄율이 낮은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방과후 서비스는 크게 사적(private) 서비스와 공적(public)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적 방과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교육'으로 지칭되는 사설학원, 과외, 방문지도, 학습지 등을 포함하며 공적 방과후 서비스

에는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복지관 방과후 교실 등이 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부모가 부담하는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교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 내외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 방과후 서비스로 보고자 한다. 방과후 학교는 2013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참여율은 72.2%로 2009년의 57.5%에 비해 급증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n.d.).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목 외에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예체능 수업도 방과후 학교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으나, 전체 개설과목의 14.7%, 14.5%를 각각 영어와 수학 과목이 차지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수업 전후에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은 주로 방과후 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이 되었으며, 2012년 현재 약 4,0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10만 5천명의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한부모·조손·다문화가구 아동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크게 1) 보호, 2) 교육, 3) 문화, 4) 정서지원, 5)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호 영역에는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생활안전지도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교육 영역에는 학습, 특기적성, 인성·사회성 교육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문화 영역에는 공연, 견학, 캠프 등의 체험활동과 참여활동이, 정서지원 영역에는 상담과 가족지원 등이,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는 자원봉사활동, 후원과 관리, 복지단체 연결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있다(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2014).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는 교과 학원과 예체능 학원이 포함된 '사교육'일 것이다.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는 개인이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유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사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2천원으로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중학생에 비해 약 3만 5천원 낮은 반면에(Statistics Korea, 2014)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1.8%로 중학

생(69.5%)이나 고등학생(49.2%)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5%로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읍면지역은 57.5%로 가장 낮았는데, 지역사회의 사교육시장 형성과 이용여건 등이 사교육 참여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소득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구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참여율은 31.3%로 700만원이상 집단의 참여율인 83.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며(K. K. Kim, & Y. J. Hwang, 2009; H. Park, T. Shin, Y. Ha, & J. Lee, 201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H. Park, 2008)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 C. Shin & K. H. Kim,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학업성취, 상위대학 진학률의 단순상관관계는 사교육 참여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여 상위대학 진학률을 높인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하지만(H. J. Choi, 2008),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여부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는 수학교과는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국어와 영어교과는 연구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J. S. Lee, 2013).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은 다단계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학교와 초1, 초4, 중1학년생 학급(2010년 기준)을 추출한 후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과 그들의 보호자의 쌍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매해 1년간 개인의 성장과 발달 및 개인을 둘러싼 가정, 또래, 지역사회, 매체 등의 환경을 추적조사하는 종단조사로 현재까지 4차 자료가 수집되었다(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 n.d.). 본 연구는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초1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2,3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되는 변인에 결측치가 없는 2,061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결측치로 인해 최종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n=281)은 최종 연구대상 아동(n=2,061)에 비해 남아아동인 경우가 많았으며(chi-square

=36.93,  $p < .001$ ), 가족구성원의 수는 작은 편이고( $F=11.57$ ,  $p < .001$ ), 양부모 외의 가족구조를 보이며(chi-square=99.63,  $p < .001$ ),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chi-square=66.82,  $p < .001$ ).

#### 2. 연구변인

#####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즉, 3차년도)의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이다. 아동의 자기보호 측정은 방과후 보호자 부재를 경험하는 빈도에 대해 '1) 거의 없다',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거의 없다'의 응답은 아동이 자기보호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로(=0), 그 외의 경우는 자기보호를 경험한 경우로(=1)하는 '자기보호 여부' 변인을 생성하였다. 자기보호를 경험하지 않는 아동은 1,401명이고, 자기보호를 경험한 아동은 660명이었다.

#####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방과후 서비스 이용이며, 이를 위하여 1) 이용한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2) 이용한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 3) 방과후 서비스의 혼합이용 패턴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패널은 방과후 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여러 과목(예: 국어, 과학, 논술)이 어떠한 교육유형(예: 학원, 방과후 학교, 복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교육경험유무와 주당 평균 교육시간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1) 학원, 2) 과외/방문지도, 3) 방과후 학교, 4) 복지기관의 총 네 가지 방과후 서비스 유형에 대해 한 과목 이상 방과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을 때 해당 방과후 서비스에 참여(=1)한 것으로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을 측정하였다. 이용한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는 총 네 가지의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이용여부를 합산하였으므로 최소값은 0이며 최대값은 4이다. 각 서비스 유형과 이용한 서비스 유형의 개수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방과후 서비스의 총 이용시간은 각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해당 서비스별 각 과목의 교육에 투입된 시간을 합산해서 산출하였다.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나 복지기관의 경우 교육 외에 아동의 보호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나 과목당 교육에 참여한 시간만 측정하고 있어서, 이들 기관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과소측정된 측면이 있다. <Table 1>의 기술분석 결과를 보면, 약

6%의 아동이 어떠한 방과후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약 79%의 아동은 한두 가지의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 평균 학원 이용시간은 약 8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방과후 서비스 이용패턴을 보여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 방과후 서비스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와 복지기관의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각각 5% 미만이기 때문에 이 두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이라도 이용하는 경우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장 많은 수의 아동(615명, 29.84%)이 학원이나 과외/방문지도 중 한 가지의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나타난 혼합이용 패턴은 학원과 과외/방문지도를 모두 이용하는 유형(564명, 27.37%), 사적 서비스 중 한 가지만 이용하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361명, 17.52%), 사적 서비스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291명, 14.12%)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통제변인

2차년도의 특성이 3차년도 1년간의 방과후 서비스 이용과 자기보호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통제변인으로 2차년도 아동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아동의 성별, 가구원수, 가구의 소득수준(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 비저소득 가구), 어머니 혹은 주양육자의 학력(고졸이하, 초대졸 이상), 가족구조(양부모 가구, 그 외 가

구), 어머니 혹은 주양육자의 취업여부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패턴을 통해 측정되지 않았거나(예: 생활시간의 배분) 수집 불가능한 아동 개인 특성(예: 복지기관의 단체생활보다는 과외/방문지도와 같은 개인적 접근의 선호)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하여 2차년도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다음의 단계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첫째,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가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혹은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다양성, 총 학습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chi-square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유형의 개수, 혼합이용 패턴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tata/SE 13.0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이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미치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on the after-school service use

Number of types	Number of users		Total hours in use		Type	Number of users	Hours in use	
	Obs.	(%)	Mean	(SD)			평균	(SD)
0	121	(5.87)	0	(0.00)	Private: Group mentoring	1,596	8.23	(7.34)
1	714	(34.64)	9.03	(9.79)	Private: Individual mentoring or home visit service	1,090	2.82	(4.43)
2	916	(44.44)	9.71	(6.23)	Public: After-school class	681	3.33	(4.72)
3	306	(14.85)	11.30	(7.86)	Public: Welfare center	113	3.35	(3.16)
4	4	(0.19)	13.50	(4.17)				

Table 2. Distribution by the patterns of the service use

Patterns	Obs.	(%)
Use of both private services	564	(27.37)
Use of both private services & public service(s)	291	(14.12)
Use of one private service only	615	(29.84)
Use of one private service & & public service(s)	361	(17.52)
No use of either private or public service	121	( 5.87)
Use of public service(s) only	109	( 5.29)

는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3> 참고). 아동의 성별, 가족 구성원의 수, 가구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기보호 여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구조와 어머니(혹은 주양육자)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기보호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가구의 경우(chi-square=25.65,  $p < .001$ ) 혹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chi-square=144.64,  $p < .001$ )에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서비스의 유형, 다양성, 혼합이용 패턴이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미치는 영향

개별 방과후 서비스 이용 여부와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원이나 방과후 학교의 이용여부는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와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그러나 과외/방문지도를 이용하거나(chi-square= 12.95,  $p < .001$ ) 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chi-square=6.39,  $p < .05$ ) 아동이 자기보호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나 총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동의 자기

Table 3. Self-care by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61)

		Exposed to self-care		chi-square or t-test
		No (n=1,401)	Yes (n=660)	
Gender	Girl (n=1,006)	687 (68.29)	319 (31.71)	0.09
	Boy (n=1,055)	714 (67.68)	341 (32.32)	
Number of family members		4.22 (0.76)	4.18 (0.75)	1.46
Family income	NBLSS (n=158)	103 (65.19)	55 (34.81)	1.66
	Poor (n=294)	193 (65.65)	101 (34.35)	
	Non-poor (n=1,609)	1,105 (68.68)	504 (31.32)	
Mother's educational level	Less than or equal to high school (n=1,112)	771 (69.33)	341 (30.67)	2.05
	More than high school (n=949)	630 (66.39)	319 (33.61)	
Family structure	Other than intact (n=246)	202 (82.11)	44 (17.89)	25.65***
	Intact family (n=1,815)	1,199 (66.06)	616 (33.94)	
Maternal employment status	Not working (n=946)	770 (81.40)	176 (18.60)	144.64***
	Working (n=1,115)	631 (56.59)	484 (43.41)	

\*\*\*  $p < .001$

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self-care and each type, the number of types, and the patterns of use of after-school service

(n=2,061)

		Exposed to self-care		chi-square or t-test
		No (n=1,401)	Yes (n=660)	
Private: Group mentoring	No use (n=465)	312 (67.10)	153 (32.90)	0.21
	Use (n=1,596)	1,089 (68.23)	507 (31.77)	
Private: Individual mentoring or home visit	No use (n=971)	622 (64.06)	349 (35.92)	12.95***
	Use (=1,090)	779 (71.47)	311 (28.53)	
Public: After-school class	No use (n=1,380)	932 (67.54)	448 (32.46)	0.37
	Use (n=681)	469 (68.87)	212 (31.13)	
Public: Welfare center	No use (n=1,948)	1,312 (67.35)	636 (32.65)	6.39*
	Use (n=113)	89 (78.76)	24 (21.24)	
Number of types		1.73 (0.80)	1.60 (0.79)	12.77***
Total hours of service use		9.55 (8.93)	8.31 (5.80)	10.51**

\*\*\*  $p < .001$  ; \*\*  $p < .01$  ; \*  $p < .05$



보호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을 때, 자기 보호 경험이 없는 아동은 자기보호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유형의 방과후 서비스( $t=12.77, p < .001$ )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총 서비스 이용시간도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t=10.51, p < .01$ ).

<Table 5>는 방과후 서비스의 혼합이용 패턴에 따라 아동의 자기보호 경험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방과후 서비스 혼합이용 패턴에 따라 자기보호 경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chi^2(5)=12.00, p < .05$ ), 사적 서비스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뿐만 아니라 공적 서비스도 이용하는 집단의 아동은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경우가 26.46%로 가장 낮은 반면에 어떠한 방과후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자기 보호를 경험하는 경우가 39.67%로 가장 높았다.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 유형의 개수, 총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은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모형 2는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과 총 서비스 이용시간, 모형 3은 이용하고

Table 5. Relationships between self-care and patterns of use (n=2,061)

	Exposed to self-care		chi-square
	No (n=1,401)	Yes (n=660)	
Use of both private services	399 (70.74)	165 (29.26)	12.00*
Use of both private services & public service(s)	214 (73.54)	77 (26.46)	
Use of one private service only	400 (65.04)	215 (34.96)	
Use of one private service & & public service(s)	242 (67.04)	119 (32.96)	
No use of either private or public service	73 (60.33)	48 (39.67)	
Use of public service(s) only	73 (66.97)	36 (33.03)	

\*  $p < .05$

Table 6. Types of after-school programs explaining the likelihood of self-care

	Model 1: Types	Model 2: Types + Total hours	Model 3: Number of types	Model 4: Number of types + Total hours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Private: Group mentoring	0.07 (0.14)	0.26 (0.15)	-	-
Private: Individual mentoring or home visit	-0.26 (0.11)*	-0.25 (0.11)*	-	-
Public: After-school class	-0.01 (0.12)	0.03 (0.12)	-	-
Public: Welfare center	-0.71 (0.27)**	-0.65 (0.27)*	-	-
Number of types	-	-	-0.13 (0.07)	-0.08 (0.07)
Total hours of service use	-	-0.03 (0.01)**	-	-0.02 (0.01)*
Boy	0.01 (0.11)	0.02 (0.11)	0.01 (0.11)	0.02 (0.11)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04 (0.08)	-0.05 (0.08)	-0.04 (0.08)	-0.05 (0.08)
NBLSS <sup>a</sup>	0.49 (0.21)*	0.49 (0.21)*	0.41 (0.21)	0.40 (0.21)
Poor <sup>a</sup>	0.23 (0.16)	0.21 (0.16)	0.21 (0.16)	0.18 (0.16)
Less than or equal to high school	0.04 (0.11)	0.02 (0.11)	0.03 (0.11)	0.01 (0.11)
Intact family	0.91 (0.20)***	0.93 (0.20)***	0.89 (0.20)***	0.90 (0.20)***
Working mothers	0.73 (0.12)***	0.75 (0.12)***	0.73 (0.12)***	0.74 (0.12)***
Self-care at the previous year	1.88 (0.11)***	1.88 (0.12)***	1.88 (0.11)***	1.87 (0.11)***
Constant	-2.57 (0.44)***	-2.45 (0.45)***	-2.42 (0.43)***	-2.26 (0.44)***
Cases	2,061	2,061	2,061	2,061
LR chi-square	514.91***	527.10***	505.01***	513.01***

\*\*\*  $p < .001$  ; \*\*  $p < .01$  ; \*  $p < .05$

a. Reference group: Non-poor

있는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 모형 4는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와 총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하였으며 이들 분석에 투입된 통제변인은 동일하다. 모형 1의 결과는 과외/방문지도나 복지기관을 이용할 때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odds)은 각각 23%(=1-exp(-0.26), 51%(=1-exp(-0.71)) 감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형 1에 서비스 총 학습시간이 투입된 모형 2의 결과는 과외/방문지도나 복지기관의 이용뿐만 아니라 총 서비스 이용시간이 한 시간 많아질수록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odds)은 3%(=1-exp(-0.03))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개별 서비스의 이용여부보다는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의 개수(모형 3)와 서비스 유형의 개수와 총 서비스 이용시간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모형 4)는,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의 개수보다는 총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Table 7>은 방과후 서비스 이용패턴에 따른 자기보호 경험 확률을 보여주는 로짓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용패턴만이 투입된 모형 1과 이용패턴과 총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한 모형 2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방과후 서비스의 혼합이용 패턴에 따라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비스 혼합이용 패턴보다는 총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을 낮추는

방과후 서비스 관련 요인임을 보여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 방과후 서비스의 혼합이용 패턴이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중 과외/방문지도와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이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유의하였다. 과외/방문지도를 이용하는 아동의 낮은 자기보호 확률은 과외/방문지도를 이용하기 때 문이라기보다는 성인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있는 아동이 과외/방문지도를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개인과외나 그룹과외의 경우 가정 밖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방문지도는 전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 과외나 방문지도를 이용할 경우에 가정에 성인

Table 7. Patterns of program use explaining the likelihood of self-care

	Model 1	Model 2
	Coef. (S.E.)	Coef. (S.E.)
Use of both private services <sup>a</sup>	-0.17 (0.14)	-0.16 (0.15)
Use of both private services & public service(s) <sup>a</sup>	-0.28 (0.18)	-0.24 (0.18)
Use of one private service & & public service(s) <sup>a</sup>	-0.12 (0.16)	-0.12 (0.16)
No use of either private or public service <sup>a</sup>	0.01 (0.24)	-0.22 (0.25)
Use of public service(s) only <sup>a</sup>	-0.09 (0.26)	-0.18 (0.26)
Total hours of service use	-	-0.03 (0.01)**
Boy	0.01 (0.11)	0.02 (0.11)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04 (0.08)	-0.05 (0.08)
NBLSS <sup>b</sup>	0.43 (0.21)*	0.43 (0.21)*
Poor <sup>b</sup>	0.21 (0.16)	0.19 (0.16)
Less than or equal to high school	0.03 (0.11)	0.02 (0.11)
Intact family	0.89 (0.20)***	0.90 (0.20)***
Working mothers	0.73 (0.12)***	0.74 (0.12)***
Self-care at the previous year	1.88 (0.11)***	1.88 (0.12)***
Constant	-2.53 (0.42)***	-2.26 (0.43)***
Cases	2,061	2,061
LR chi-square	504.56***	514.21***

\*\*\* p < .001 ; \*\* p < .01 ; \* p < .05

<sup>a</sup> Reference group - Use of only one private service

<sup>b</sup> Reference group - Non poor

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구원의 수나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기는 하였으나,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에 있는 다른 성인가구원(예: 조부모)이나 가사도우미 등까지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여부가 과외/방문지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과외/방문지도를 이용하는 아동은 자기보호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방과후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낮은 자기보호 확률은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패널은 각 방과후 서비스의 실제 이용시간이 아닌 각 과목별 학습시간만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즉, 지역아동센터의 총 이용시간 중 학습시간만 측정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지역아동센터가 본래의 설립취지인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S. W. Jeong & J. S. Kim, 2014)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즐거운 곳, 쉴 수 있는 곳, 도움을 제공하는 곳과 같이 단지 학습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습 외에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과 다른 방과후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물리적 세팅(예: 가정적인 환경)으로 인해 학습시간만이 측정된 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으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패널은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 중 지역아동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기관 이용 아동의 낮은 자기보호 확률을 지역아동센터의 성공적인 보호역할 제공 때문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는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총 서비스 이용시간만이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을 설명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유형의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시간이 충분하다면 아동이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공 재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각종 방과후 서비스(예: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각 부처가 제한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충분성은 미비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까지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오후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교수는 약 6,000여개에 참여학생수도 22

만 명에 이르지만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는 저녁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교수는 약 1,800여개에 참여학생수도 2만 명 정도이다(Ministry of Education & KEDI, n.d.). 이로 인해 저녁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가정형편에 따라 사교육을 이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복지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를 혼합하여 이용할 때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이 감소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돌봄서비스의 중복이용을 방지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노력(예: S. Gu, 2014)과는 반대되는 입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유형의 개수가 아닌 총 서비스 이용시간만이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을 설명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방과후 돌봄이라는 방과후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중복이용 여부가 아니라 서비스의 충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방과후 서비스를 조정할 지역돌봄협의체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중복과 차별성의 부족 등으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비효율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M. Kim, 2006)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방과후 서비스의 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혼합이용 패턴과 자기보호 여부만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사적 서비스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뿐만 아니라 공적 서비스도 이용하는 집단의 아동은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에 어떠한 방과후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자기보호를 경험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총 서비스 이용시간을 통제하였을 때 어떠한 조합으로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는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서비스 이용시간만이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을 설명한다는 연구결과는 두 번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충분성만 담보되어 있다면 어떤 조합으로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와 상관없이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보호의 목적으로 설계된 공적 방과후 서비스나 아동보호의 목적이 표면상에 없는 사적 방과후 서비스 모두 성인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총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감독과 보호를 대신할 서비스의 이용이 아동의 자기보호를 줄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M. Seligson et al., 1983)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과후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효과를 1)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유형, 2)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유형의 개수, 3) 방과후 서비스의 혼합이용 패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수집된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 이용시간 문항과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를 보인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과목별로 해당 과목의 방과후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학습 시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교육 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측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관의 이용이 아동의 자기보호 확률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결과는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보호 역할을 강력하게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주일에 평균 8시간을 이용하는 학원의 이용이나 3시간을 이용하는 복지기관의 이용 모두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유형의 개수나 혼합이용 패턴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비록 총 서비스 이용시간을 통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동이 개별 방과후 서비스에 투입한 시간의 상대적인 비율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에서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분석까지 진행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izer, A. (2004). Home alone: Supervision after school and child behavi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835-1848.
- Brandon, P. D. (1999). Determinants of self-care arrangements among school-age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1(6), 497-520.
- Byun, S., Hwang, Y., & Kim, K. (2011).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 particip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1(2), 57-85.
- Cain, V. S., & Hofferth, S. L. (1989). Parental choice of self-care for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1), 65-77.
- Casper, L., & Smith, K. (2004). Self-care: Why do parents leave their children unsupervised? *Demography*, 41(2), 285-301.
- Choi, H. J. (2008).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college entrance. *Kukje Kyungje Yongu*, 14(1), 73-110.
- Choi, J. B. (2008). Korean parents' perceptions of child neglect. *Dong Gwang*, 104, 1-38.
- Gu, S. (2014). *Evaluation on after-school services* (Report no. 14-11). Seoul: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Jeong, S. W., & Kim, J. S. (2014). Experiences of children about community child center: Continuous participation vs drop-out of community child center. *Youth Culture Forum*, 39, 115-141.
- Johnson, J. O. (2005).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Winter 2000. Current Population Reports (70-101)*.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 Kim, K. K., & Hwang, Y. J. (2009). Determinants of demand for shadow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5(1), 77-105.
- Kim, K., & Lim, J. (2012).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English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usal relationships based on instrument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2(4), 1~24.
- Kim, M. (2006). The efficient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2), 3-36.
- Lee, H., & Shin, H. J. (2008). Regional children's center as a positive factor to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from the low income family in a small c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14(1), 167-193.
- Lee, J. S. (2013). *Comparison methods for controlling covariat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estimating causal effects of private tuto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opoo, L. M. (2005). Maternal employment and latchkey adolescents. *The Social Service Review*, 79(4), 602-623.
- Lord, H., & Mahoney, J. L. (2007). Neighborhood crime and self-care: Risks for aggression and lower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321-1333.
- Mack, K. A., Dellinger, A., & West, B. A. (2012). Adult

- opinions about the age at which children can be left home alone, bathe alone, or bike alone: Second Injury Control and Risk Survey (ICARIS-2). *Journal of Safety Research*, 43(30), 223-226.
- Mahoney, J. L., Lord, H. & Carryl, E. (2005). An ecological analysis of after school program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cademic performance and motivational attributes for disadvant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6(4), 811-825.
-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n.d.) *Portal system on after-school programs*. Retrieved from <https://www.afterschool.go.k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Report on the real condition of self-care children*.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2012). *Report on the real condition of community child centers nationwide*.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2014). *Service manual for community child center*.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B Foundation. (2009). *Report on the real condition of children and youth*.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B Foundation.
- Mott, J. A., Crowe, P. A., Richardson, J., & Flay, B. (1999). After-school supervision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Contributions of the setting and intensity of after-school self-car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2(1), 35-58.
- 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 (n.d.) *Introduction of the Panel Study on Children and Youth*. Retrieved from [http://archive.nypi.re.kr/contents/siteMain.do?srch\\_mu\\_lang=ENG](http://archive.nypi.re.kr/contents/siteMain.do?srch_mu_lang=ENG).
- Park, H. (2008). Effects of school-level factors on the private tutor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9(4), 91-110.
- Park, H., Shin, T., Ha, Y., & Lee, J. (2011). Deriving the longitudinal pattern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using LPAMS model and examining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of these pattern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4(2), 291-316.
-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2), 440-456.
- Seligman, M., Genser, A., Ganet, E., & Gray, W. (1983). *School-age child care: A policy report*. Wellesley, MA: Schol-Age Child Care Project, Wellesley College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 Shin, I. C., & Kim, K. H. (2010).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the use of private tutor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0(1), 127-150.
- Shulman, S., Kedem, P., Kaplan, K. J., Sever, I., & Braja, M. 1998. Latchkey children: Potential sources of suppor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2), 185-197.
- Shumow, L., Smith, T. J. & Smith, M. C. (2009). Academic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young adolescents in self-car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2), 233-257.
- Sohn, J., Lee, J., & Kim, S. (2012). *Report on the real condition of care and adjustment of low-income children* (Report No. 2012-01). Seoul: Child Fund Korea.
- Statistics Korea. (2014. 2. 27). *Report on the expenditure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Daejeon: Statistics Korea.
- Steinberg, L. (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433-439.
- Vandivere, S., Tout, K., Zaslow, M., Calkins J., & Capizzano, J. (2003). Left unsupervised: A Look at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Child Trends Research Brief* (Publication # 2003-05). Washington, DC: Child Trends.

Received: July 21. 2015

Revised: November 15. 2015

Accepted: November 22. 2015